



완도출신 장애인 AG 사격 대표 이윤리

‘금빛 총성’ 결혼 예물할래요



한국 장애인 사격의 여자 대표인 이윤리(36·전남일번가)가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둔 8일 특별한 출산 소식을 전했다.

완도 출신으로 지극한 효녀인 이윤리는 이번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평생 반려자로 꼽히는 동갑내기 이준희씨와 결혼 행진곡을 울리겠다는 계획이다.

1996년 퇴근길에 빗길 교통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이윤리는 2006년 1월 대전 보훈병원 사격장에서 재활을 위해 총을 처음 만진 뒤 전문 선수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때 사격을 지도해줬던 특전사 저격수 출신의 이준희 씨와 6년 넘게 사랑을 키워왔으나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이윤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개막식 다음 날인 13일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종목에 출전해 대표팀 동료 김임연(43·국민은행), 강명순

(43·인천아시안)과 사에서 금빛 총성을 울리려고 선의 경쟁을 펼친다.

베이징 패럴림픽 때 50m 소총 3자세 금, 은메달을 나눠 가졌던 김임연과는 17일 같은 종목에서 나란히 금빛 과녁을 겨눈다.

이윤리는 그러나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조금 앞선다.

지난 5일 추운 날씨에 훈련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몸을 녹이려고 전기장판 온도를 높였다가 발뚎뚎에 2도 화상을 입는 바람에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것.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다리 경직이 심해져 경기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다리가 흔들려 표적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약을 먹고 경기에 나서는 어지럼증 때문에 0점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이윤리는 예비 남편의 격려로 큰 힘을 얻어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사냥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윤리는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 생각하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할 생각이 아니라서 걱정이 조금 앞선다. 그러나 내가 아닌 (김)임연 언니가 하더라도 한국이 금메달을 따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동생이 지난달 13일 결혼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는 건 그렇지만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다녀와 결혼식을 올리는 걸 계획하고 있다. 금메달을 따면 값진 결혼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대잔치’ 반쪽 대회되나

대학리그 일정 맞물려 1부 대학팀 불참 ... 파행 위기

1983년 시작돼 27년 역사를 자랑하는 농구대잔치가 올해 파행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농구협회에 원래 13일부터 24일까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농구대잔치 열 열 계획이었으나 남자 1부 대학팀들의 불참 결정으로 현재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불투명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농구대잔치는 프로 출범 이후에는 남자 1.2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대회를 열었다.

상부와 12개 1부 대학팀이 출전하는 남자 1부는 농구대잔치의 하이라이트로 1부 대학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남자 2부와 여자부 경기만 열리게 돼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1부 대학팀들이 농구대잔치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일정상의 이유가 크다. 대학연맹 관계자는 “올해 출범한 대학농구리그가

일정상 10일에 끝나게 돼 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농구대잔치에 바로 출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대학리그를 출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인데 13일부터 24일까지 대회가 열리면 기말고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어 학사 일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구협회는 8일 긴급회의를 열어 “잠정적으로 농구대잔치 일정을 18일 개막으로 미루고 대학연맹과 1부 대학들의 출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연맹 관계자는 “이미 많은 팀이 4학년 선수들에게 휴가를 주고 함께 훈련 계획을 세우는 등 지금으로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 새 사무처장 박재현씨 내정

광주시체육회가 13일 광주시 서구 영주동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무처장에 내정된 박재현(53·사진) 시체육회 운영부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 사무처장에 임명될 계획이다.

이사진 교체도 이뤄진다. 43명의 이사가운데 5명에 불과한 전문 체육인 출신 이사를 9명으로 늘리고, 2명인 여성 이사로 4명으로 보강한다.

시 체육회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광주의 명예를 빛낸 기보배, 김덕현, 양학선 등 지역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1 시즌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FC 선수단이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광주 FC 제공>

드래곤즈, 최문식 수석코치 영입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신임 코치진을 확정했다.

지난 11일 정해성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던 전남이 9일 전남 선수 출신의 최문식 전 포항 코치를 수석코치로 영입했다.

조진호 전 제주 코치는 1군 코치로 선임됐으며, 노성래 코치와 김도근 코치가 각각 2군 감독과 2군 코치를 맡는다.

또 리버풀에서 영입한 제라드 누스는 피지컬 트레이너로 선수들의 전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을 담당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베스트 경쟁... 내일 호남대와 연습경기

김동섭·박기동 등 7리거 합류

광주 FC의 주전경쟁이 본격화된다.

2011년 K-리그 출격을 앞두고 있는 광주는 11일 오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천연잔디구장에서 호남대 축구팀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연습경기 첫 상대인 호남대학교 축구부는

‘2010 올레(Olleh) KT U리그’ 호남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학 최강팀.

지난 1일 첫 소집훈련을 시작한 이후 자체 훈련을 거쳐 몸이 풀었던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개인의 전력과 선수단 호흡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번 최란의 감독은 여러 선수를 번갈아 기용할 예정이라 팀 내 베스트 경쟁이 본격

도에 오르게 됐다.

한편 앞선 6일 김동섭과 김호남 두 J2리그 출신 선수가 귀국한데 이어 9일 일본 무대에서 활약한 박기동(FC 기호유) 일곱번째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한 선수들이 전연 전력에 가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 선수 내년 훈련비 284억 확정

국가대표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태릉선수촌의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 국가대표 훈련 예산이 올해 263억원에서 21억원 인상된 284억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목별 평균 훈련일수는 올해 200일에서 내년 210일로 늘어났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종목 수도 올해 13개 종목에서 26개 종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선수촌 훈련 예산은 선수들의 숙식비와 일상생활비 이외의 과·과외 장비 구입비까지

포함된다.

체육회는 또 건립 중인 진천선수촌의 내년 준공을 위해 7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8월 진천선수촌이 1차 완공되면 육상, 사격, 수영, 조정, 카누, 테니스, 배구, 농구, 럭비, 야구, 소프트볼, 장구 등 9개 종목 선수들이 먼저 입촌할 예정이다. 특히 창원 사격장에서 촌의 훈련을 했던 사격과 박태환(21·단국대) 등 수영 선수들은 최신 설비가 완비된 진천선수촌에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S모나코 박주영

구단 선정 11월의 선수

박주영(25)이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 구단에서 선정된 11월의 선수로 뽑혔다. 모나코는 9일(한국시간) 박주영이 팬 투표로 11월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박주영은 66%의 표를 얻어 아드리انو(15%)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주영은 대표팀에 뽑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느라 2주 넘게 모나코를 떠나 있었지만 지난달 프랑스 슈퍼리그 3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이달의 선수로 뽑힌 것은 이번 시즌 처음이며, 2008년 10월과 2009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아스널·AS로마 챔스리그 16강

아스널(잉글랜드)과 AS로마(이탈리아)가 힘겹게 유러피언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 정상 도전을 이어갔다.

아스널은 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최종전 홈 경기에서 후반 터진 시오 윌츠, 사미르 나스리의 득점으로 FK파르티잔(세르비아)을 3-1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4승2패가 된 아스널은 SC브라가(포르투갈)를 2-0으로 꺾은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5승1패)에 이어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E조의 AS로마는 CFR 클루지(루마니아)와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겨 3승1무2패가 됐지만 조 2위를 지켜 16강 대열에 합류했다.

산행안내 12월 11일(토) ▲광주삼일인사후회 남해 대방산 송년산행(삼포초 회관) 12월 11일(토) 7시 영주체육관 출발(7시20분 문하에서 출발) 후문, 7시 30분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광주삼일인사후회 T.010-6037-6217, 010-2663-6294

12월 16일(목) ▲e-조선산악회 12월 16일(목) 전남 담양 추월산(송년산행) 7시50분 (비엔날레주차장) 8시20분 문하에서 출발 \*다음카페: 광주450산악회 T.011-623-7382

www.daewontour.com (홈에서 일정확인하세요) 골프투어모집 1. 제주도(1박 2일 - 36홀) - 35만원(왕복항공)

12월 19일(일) ▲광주전통문화유산위원회 무등산 문화유산 12월 18일(토) 8시20분 문하에서 출발(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전통문화유산위원회 T.011-627-2113, 010-5038-9001

12월 25일(토) ▲남도산행 무등산(송년산행) 12월 25일(토) 9시 중사사 중점 발차점 \*다음카페: 남도산행 T.011-741-9239

수익성 좋은 원룸 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살림방3개분도 매가 3억3천만원, 월50만원수입